

社說

논술 중요성 커진 대입 경쟁 본격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첫 수시 논술고사가 치러지며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올해 수능이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논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1교시국어와 2교시 수학적 역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비교적 쉽고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어는 독서파트의 경제 지문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수학의 경우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간 난이도 차이가 이전보다 줄면서 최상위권 응시생과 상위권이하 응시생의 체감난이도가 달랐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학입학전략을 짜는 시간이다.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수능성적표, 정시지원 등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수능 후 첫 주말인 16~17일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숭실대 등에서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수능 후 첫 주말인 16~17일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숭실대 등에서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다음 주말인 23~24일에도 경북대, 부산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논술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수능성적이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정시 지원을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 3차별 복수지원 기회가 있는 만큼 지방대학 전형 요강을 면밀히 살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학교에서는 수능 후 학생들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학부모는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수험생 자녀들의 생활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도 수능 이후 보다 세밀한 교육일정을 짜서 자칫 일탈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중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미팅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과 양로원미국도 반대하는 '방위비 과잉청구' 합리적 결정을...

금남로에서



이문수

본지 편집인 겸 사장

은 것이어서 새로운 게 없는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도 높은 연례 회의가 끝난 직후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훨씬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한국 내 반발 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관되게 자국 논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알려진 대로 현행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관에 따르면 두 장관이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양국의 인식과 계산법에 간극이 큰 만큼 연말까지 이어질 협상에서 과연 한미 동맹의 특수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애초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금액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으려 분주했다고 한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유력 매체

의 보도인 데다 그간 정황으로 봐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돌출발언에서 표명된 전형적인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증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대해 회의를 비롯한 미 조야에서는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비판론이 분출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관심심겨리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는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갱신 단위를 5년으로 '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공화당 맨슬리번(알래스카) 의원이 지난달 말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도 "한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며 미국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 공동대응을 위해 절실한 동맹이 약화될 경우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그 틈새를 받기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47명도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며 분담금 대폭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고려한다고 해도 분담금 과잉청구가 미군에 '용병화'해 동맹 관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은 이제라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의 동맹 정신에 기반해 합리와 상식선에서 분담금을 산출하길 바란다.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고려한다고 해도 분담금 과잉청구가 미군에 '용병화'해 동맹 관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은 이제라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의 동맹 정신에 기반해 합리와 상식선에서 분담금을 산출하길 바란다.

시 도, 신산업 자유특구지정 기대가 크다

소석동산에서



전광선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지정하면서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광주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점에서 기대가 크다.

광주시는 특구지정이 제도전 끝에 거둔 성과며, 전남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지정을 받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자유특구지역은 진곡 산단을 중심으로 첨단 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km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466억원이 투입된다. 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무인차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전후방 산업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

을 주도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특구 지정으로 전남도는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앙직류(MVDC)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과 일진전기(주) 등 16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비롯해 전기차충전, 데이터센터등연관산업에 1조1천783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광주는 지역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미래형자동차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냈다"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또한 블루이코노미를 표방한 가운데 관련 에너지 신산업을 전남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시 도의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이들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청신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시절 경제개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외돼 낙후를 면

치 못했던 지역 발전을 앞당길 기회다. 지역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한번 광주-전남지역의 자유특구지정을 환영한다.

지역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한번 광주-전남지역의 자유특구지정을 환영한다.

지역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한번 광주-전남지역의 자유특구지정을 환영한다.

Advertisement for a library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reading to a child in a library setting. Text includes: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세요' (Read dreams to the child),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and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